

11/10/19

설교 제목: 성만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4 장 22-26 절, 고린도전서 11 장 20-34 절

(막 14: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막 14: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막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막 14:26)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고전 11: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전 11: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전 11: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절관주** 갈 1:1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절관주** 레 10:1, 대하 30:18, 히 10:29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절관주** 출 15:26, 삼하 12:14

(고전 11:31)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전 11: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유월절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와같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중에 성만찬을 베푸시며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이를 기념토록 명하셨습니다.

즉 성만찬을 통해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기억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전하며 이것은 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였고 세례와 성만찬을 기독교 두 성례로 정하여 전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만큼 사도 바울은 성만찬이 자신 임의로 전한 성례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만찬을 전하면서 복음서를 인용했습니다.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만찬 중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만찬 후 포도주를 주시며 당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당신을 기념하고 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30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은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위해 애굽 땅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등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했던 애굽 바로왕은 노예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지시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담을 넘어가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 바로왕이 손을 들게 되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은 것을 기뻐했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유월절로 지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통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나누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잔을 나누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빛진 자들입니다.

그 빛을 값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교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으로 거기에는 성만찬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전 11: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전 11: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전 11: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당시는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 구별이 있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신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예 신분의 교인들에 비해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간도 자유로웠던 주인 신분의 교인들은 교회에 일찍 나와 그들보다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노예 신분의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만찬을 시작했을 뿐더러 그들의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인 신분의 교인들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도 과하게 마셔 취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지적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행함으로 인해 당장 받고 있는 저주를 말합니다.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임으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하는데 교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유없이 약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이유가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태도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실제 임재하십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1. 성만찬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도들은 성만찬을 나누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성도들과 복음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측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맺은 이 복음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3.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재림을 합니까?

그러므로 성만찬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의 몸의 실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의 상징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만찬 대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배설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의 영원한 축연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성만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도사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자주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성만찬은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복음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사명을 불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찬식의 정확한 의미를 새기며 합당하게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오용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저주를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아쉬워 천하고 천한 이땅에 와서 온갖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몸 버리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성찬식은 못 나누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